

‘타이거즈의 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열린다



오늘 홈 개막전 토종 에이스 윤석민 선발 등판 상승세 LG 막기 특명...1회 끝나면 1200이닝 투구

개막전 선발로 팬들 앞에 선다. 이런저런 경우의 수가 다음 등판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6일 광주에 비 예보가 있는데다 선발진 후보들이 많은 만큼 임시 6선발 체제를 가동해 윤석민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여기에 NC와의 개막 2연전에서 불펜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불펜진들이 100% 전력으로 시즌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민은 ‘캡틴’ 류제국을 전면에 내세운 LG의 상승세를 잠재워야 한다.

LG는 한화 이글스와의 개막 시리즈에서 두 경기 연속 연장 혈투를 벌인 끝에 모두 끝내기 승을 장식했다. 짜릿한 2승으로 1위 자리에서 시즌을 연 LG는 지난 3일 경기기 우천취소되면서 연장 혈투 후유증도 최소화했다. LG의 신바람에 맞서야 하는 KIA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개막시리즈의 감만 가지고 경기를 치르면 된다.

KIA는 최고의 천재적 우승후보 영순위인 NC를 상대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줬다. 두 경기에서

NC의 다이내마이트 타선을 8실점으로 묶었고, ‘호랑이 사냥꾼’으로 통하는 해커에게 7개의 안타를 뺏아내는 등 좋은 타격감을 보였다.

이범호·필·김주찬 등 해줘야 하는 선수들의 활약 속에 유격수 김주찬이 공·수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며 반전 카드로서 스타트를 잘 끊었고, 타선의 ‘마지막 퍼즐’ 나지완도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면서 타선에 힘이 붙었다.

LG전을 통해 홈팬들에게 2016시즌 신고 인사를 하는 KIA는 주말에는 수원으로 가서 kt 위즈와 시즌 첫 대결을 벌인다.

한편 윤석민은 5일 1회 등판이 끝나면, 통산 41번째 1200이닝 투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23명의 타자 승부하며 5000타자 상대(통산 44번째) 기록도 작성된다. 1300경기 출장날이었던 지난 2일, 2루타를 기록했던 김주찬은 3개의 2루타를 추가하면 29번째 250 2루타의 주인공이 된다. 50 3루타에는 하나 남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홈 개막전 팬 사인회·인기가수 공연 등 풍성

5일 윤장현 시장 시구...‘봄의 제전 G’ 그라운드 발레도

챔피언스필드에 ‘타이거즈의 봄’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가 5일 2016시즌 홈 개막전을 맞아 ‘타이거즈의 봄’이란 주제로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라운드 발레 등 클래식한 공연과 봄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연출된다.

KIA는 홈 개막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외야에 ‘위시 가든’을 설치한다. ‘위시 트리’에 팬들이 직접 응원과 V11 염원의 쪽지를 적어 걸 수 있다. 또 이흥구, 오준혁, 박찬호 등이 참여하는 팬 사인회가 오후 4시45분부터 약 30분 동안 중앙출입구 옆에서 진행된다.

개막 식전 이벤트는 오후 5시20분 시작된다. 장

내에서는 개막 오프닝 영상물이 상영되고, 해경 의장대의 절도 있는 공연도 진행된다. 이어 걸그룹 달샤벳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다. 식전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광주시립발레단이 장식한다. 광주시립발레단은 그라운드에서 ‘봄의 제전 G’라는 창작 발레를 선보인다. 국내 최초의 그라운드 발레 공연에는 광주시립발레단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 김주원, 광주 출신의 발레리노 윤전일이 함께 한다. 김주원, 윤전일은 선수단 사인회에도 동참한다.

한편 KIA는 2014시즌에는 그라운드 뮤지컬, 2015시즌에는 객석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치며 챔피언스필드에 문화를 더하기도 했다.

식전행사의 정점은 국내 최고의 보컬리스트 휘성이 짙는다.

개막식 공식 행사는 오후 6시 8분 시작된다. 원정팀 소개에 이어 올 시즌 그라운드를 호령할 호랑이들이 차례로 소개된다. 이어 양팀 감독에게 꽃다발이 전달된 뒤 KIA 타이거즈 박한우 사장이 개막을 선언한다. 이날 애국가도 KBS광주 어린이 합창단이 제창하고, 시구는 윤장현 광주시장이다. 시타는 광주 고려인마을의 구기필(15)군이 맡는다.

6일 시구자로는 열혈팬 김건우(15)군이 나서고, 시타는 김 군의 할머니 김순애(72)씨가 한다. 두 사람은 정규시즌은 물론 지난 2월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참관단으로도 참여, KIA 선수들을 응원한 열혈 가족팬이다.

7일에는 ‘프로듀스 101’ 출신의 신인 걸그룹 ‘트윅클’이 애국가 제창과 시구, 시타를 맡는다. 5회말 종료 후 클리닝타임에는 축하 공연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창초 야구,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로

송정동초 5-4 꺾고 우승

수창초 야구부가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 자격을 얻었다.

수창초는 최근 본량 리틀구장에서 끝난 제3회 광주수안병원장배 겸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에서 송정동초를 5-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A·B조로 나뉜 리그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수창초는 대회 첫 상대 서립초를 9-1로 제압한 뒤, 학강초를 9-7로 누르며 B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수창초는 A조 2위인 서석초와의 준결승에서 6-3으로 승리를 거둔데 이어 송정동초가

지 제압하며 우승팀이 되었다.

수창초는 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진흥중과 오는 5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시상내역

▲우승 : 수창초 ▲준우승 : 송정동초 ▲최우수선수상 : 이석현(수창초) ▲우수투수상 : 기형준(수창초) ▲타격상 : 주종혁(0.777·송정동초) ▲최다도루상 : 주종혁(6개) ▲최다타점상 : 이재원(7타점·송정동초) ▲감독상 : 박원진(송정동초) ▲미기상 : 최민규(수창초) ▲감독상 : 류창희(수창초) ▲지도상 : 박덕자(수창초 교장)

/김여울기자 wool@



오승환 ML 데뷔전... 1이닝 2탈삼진 무실점

투수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2016 시즌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오승환은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전에서 0-3으로 밀린 7회말 마운드에 올라 1이닝 2볼넷 2탈삼진 무피안타로 무실점했다.

이날 등판으로 오승환은 1994년 박찬호를 시작

으로 데뷔 당시 한국 국적 선수로는 16번째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아울러 오승환은 이상훈, 구대성, 임창용에 이어 4번째로 한국·일본을 거쳐 미국까지 3개국 프로야구를 모두 경험한 투수가 됐다. 미국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끝낸 박찬호를 포함하면 한국, 일본, 미국 프로야구 1군 무대에서 모두 5번째 한국 선수다. /연합뉴스

“사랑해요”

세계 랭킹 1위인 뉴질랜드 교포 리더야 고(19·가운데 핑크 상의)가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 대회에서 우승한 후 팔로하트 모양을 그리며 호수로 뛰어든다.

/연합뉴스



리디아 고 ‘호수의 여왕’

LPGA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 전인지 1타차 2위

뉴질랜드 교포 리더야 고(19)가 생애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세계랭킹 1위 리더야 고는 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 다이나소 코스(파72·676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8번홀(파5)의 극적인 버디를 포함, 보기 없이 3타를 줄였다.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적어낸 리더야 고는 지난해 에비앙 챔피언십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하며 우승 상금 39만 달러를 차지했다.

허리 부상에서 복귀한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리더야 고에 1타 뒤진 공동 2위(11언더파 277타)에 올랐다.

선두와 3타차 이내에 10명이 넘는 선수들이 줄을 서면서 혼전 속에 4라운드가 시작됐다.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출발한 리더야 고는 5번홀(파3)에서 1타를 줄인 뒤 8번홀(파3)에서 10m 넘는 버디 퍼

트를 성공, 2타차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갔다.전인지는 9번홀에서 4라운드 첫 버디를 신고한데 이어 10번홀(파4)에서도 한타를 줄였다. 에리아 쭈타누간(태국)도 10번홀까지 3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나서면서 중반 이후부터는 치열한 3파전이 벌어졌다.

9번홀부터 파 행진을 이어가던 리더야 고가 18번홀에서 결정타를 날렸다. 장타자들이 2운을 노리는 이 홀에서 리더야 고는 끊어가는 전략을 택했다. 세 번째 샷을 홀 50cm에 붙인 뒤 가볍게 버디를 잡아내 1타차 선두로 먼저 경기를 끝냈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마지막 날 버디 5개에 보기 1개로 4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80타를 기록했지만 박성현(22·넵스) 등과 공동 6위에 올랐다. /연합뉴스